

마가복음의 결말과 종결의 GAP¹⁾

김영인*

1. 들어가는 말

마가복음 16:9-20은 모든 번역성서에서 마가복음의 결말로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티첸도르프(Konstantin von Tischendorf)이후의 비평적 그리스어 신약성서 본문에서는 소위 마가의 긴 결말(LE: Long Ending)이라는 막 16:9-20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비평적 그리스어 신약성서 본문의 편집자들은 그래서 마가의 긴 결말을 이중의 꺾쇠기호 혹은 단일한 꺾쇠기호로 감싸서 구별하여, 마가의 긴 결말이 마가의 원본문(原本文)에 속하지 않는다고 표시한다. 이것은 또한 비평적 그리스어 신약성서 본문에 수록된 마가의 짧은 결론(SE: Short Ending)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사실들은 마가의 원결말(原結末)에 대한 여러 가지 의구심을 유발하며 마가의 원결말을 찾으려는 노력을 촉발시켰다.

이 소고에서는 먼저 마가의 원결말을 찾기 위한 노력의 중요한 시발점이 되는 마가복음의 결론이 마가복음 16:8 이후에 존재하는가라는 문제를 다룬 뒤, 이전의 연구 접근법과는 색다른 최근의 연구 방법을 비평적으로 소개한다. 마가복음이 16:8에서 끝나는가 아니면 계속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마가복음 16:8에 쓰여진 최종 단어 γάρ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가 중요한데, 여기에서는 이 단어의 기능적, 통계적 용례를 넘어 새로운 해석학적 시도가 있어야 함을 그 전망과 대안으로 짧게 제시하려고 한다.

2. 마가복음 16:8의 문제

훌륭한 사본증거에 따른 본문비평은²⁾ 16:8에서 끝나는 마가복음의 결말을 이

* 하나성서연구소 연구원, 서울신대, 평택대, 한세대 강사, 신약학.

1) 이 소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Die Erscheinung Jesu. Eine rezeptionsorientierte Untersuchung der Erscheinungserzählungen in den synoptischen Evangelien”, Th.D. Dissertation (KiHo Wuppertal/Bethel, Bielefeld 2009 미간행)의 모티브가 되었던 것을 심화, 발전시킨 것이다.

2) 사본 B와 ✠ 를 참조하라. 또한 Kurt Aland und Barbara Aland, *Der Text des Neuen Testaments*

렇게 기록하고 있다: καὶ οὐδενὶ οὐδὲν εἶπαν· ἐφοβοῦντο γάρ. 이것을 어순에 따라 직역하면 “그리고 그들은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하였다: 그들은 무서웠기 때문이었다”로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³⁾ 이처럼 마가복음의 결말이 형식적으로 후치 가능 접속사인 γάρ로 갑자기 끝난다는 것은 무척 낯선 것이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다른 복음서의 결말에 나타나는 예수의 부활과 현현, 혹은 승천 이야기가 빠져 있어 어색하기도 하다. 게다가 마가복음의 내러티브는 이미 그 속에 예수의 고난과 부활을 세 번이나 예고하면서 독자에게 주인공 예수의 부활과 현현이 내러티브가 끝나기 전 어디에선가 묘사되리라고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⁴⁾

물론 우리는 마가의 긴 결말이라고 불리는 마가복음 16:9-20에서 예수의 부활과 현현에 대한 다채로운 보도들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본문비평은 마가의 긴 결말을 마가의 원결말로 인정하지 않고, 훌륭한 사본증거를 갖는 텍스트들은 하나같이 예수의 부활과 현현에 대하여 침묵한 채, 이해하기 힘든 ἐφοβοῦντο γάρ라는 말로 16:8에서 갑자기 끝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마가의 결말을 전승하는 대략 1700여 개의 사본들은 16:8에서 끝나는 이런 마가 결말의 의아함을 반영하듯 다양한 결말로 분화되어 전승되었다.⁵⁾ 이 1700여 종의 사본들은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⁶⁾

- ① 막 16.8
- ② 막 16,8 + 9-20 (긴 결말, 본문비평적 표시와 함께)
- ③ 막 16,8 + 9-20 (이어지는 텍스트처럼)
- ④ 막 16,8 + 짧은 결말
- ⑤ 막 16,8 + 긴 결말과 짧은 결말을 섞어서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89), 특히 295-296; Dieter Lührmann, *Das Markusevangelium*, HNT3 (Tübingen: J.C.B Mohr, gesellschaft, 1989), 268-270; 또한 다음을 비교하라. Camille Focant, “La canonicité de la finale longue (Mc 16,9-20) vers la reconnaissance d’ un double texte canonique?”, in ders., ed., *Marc, un évangile étonnant*, BEThL 194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2006), 371-381; 더 나아가서 Jörg Frey, “Zu Text und Sinn des Freer-Logion”, *ZNW* 93 (2002), 13-34.

3) 다음의 번역을 참조하라. 『개역』과 『개역개정』 막 16:8: “...무서워하여...”, 『공동』: “...너무도 무서워서”, 『표준개정』: “...그들은 두려워서...”
 4) 예를 들면 막 8:31-38, 9:31-37, 10:32-45 또한 막 14:28과 16:7.
 5) 다음을 참조하라. Michael W. Holmes, “To Be Continued...The Many Endings of the Gospel of Mark”, *BR* 17 (2001), 12-23 과 48-50.
 6) 다음을 비교하라. Morton S. Enslin, “ἐφοβοῦντο γάρ, Mark 16:8”, *JBL* 46 (1927), 62-68, 64-65 또한 Michael W. Holmes, “To Be Continued...The Many Endings of the Gospel of Mark”, 12-23과 48-50.

이상의 다섯 가지 유형이 구체적으로 말하듯이, 우리에게 전해진 마가복음의 사본들은 독자의 아쉬움과 기대를 채우지 못하고 갑자기 끝나는 마가의 결말을 보충, 보완하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6:8에 부가된 결말들은 모두 예수와 제자들의 재회를 포함한 부활과 현현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장 오래된 권위 있는 사본들은 예수의 부활과 현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으며, 모두 16:8의 ἐφοβούντο γάρ로 끝이 난다.

이런 연유에서 그리스바흐(Johann Jakob Griesbach)는 1803년 자신의 그리스어 신약성서 두 번째 판에서 긴 결말(LE)을 마가의 원결말로 인정하지 않는다. 역시 그리스어 신약성서 편집자인 웨스트코트(Westcott)와 호르트(Hort)도 그들의 첫 번째 그리스어 신약성서 편집판에서 긴 결말은 마가의 원결말이 아니라고 평가한다. 이들은 한결같이 마가의 원결말이 소실되었고 16:8이 원결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⁷⁾

그렇다면 마가의 예수 이야기는 16:8에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계속되어야 하는 것인가? 계속된다면 과연 어떤 내용이어야 하는가?

3. (마침내) 발견한 마가복음의 결말?⁸⁾

마가의 결말 부분이 소실되었다고 피력한 마태 우선설의 대표적 학자인 그리스바흐가 사라진 마가의 결말 부분이 내용적으로는 마태복음 28:9-20과 유사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처럼,⁹⁾ 공관복음서 연구자들은 본문비평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 16:8에 놓여 있는 마가 결말의 문제를 풀어보고자 자신들의 다양한 상상과 주장을 보태고 있다.¹⁰⁾ 그것은 위에서 도입한 것처럼, 무엇보다 제2복음서가 16:8에서 그 형식과 내용의 불연속성을 띠며 갑자기 ἐφοβούντο γάρ로 끝나는 것에 기인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독일에서 있었던 마가복음의 결말에 대한 논쟁을 살펴보는 것

7) 다음을 참조하라. J. Lee Magness, *Sense and Absence* (Atlanta: Schola Press, 1986), 1-2; James A. Kelhoffer, *Miracle and Mission* (Tübingen: Mohr Siebeck, 2000), 7-10; Robert Oliver Kevin, "The Lost Ending of the Gospel according to Mark", *JBL* 45 (1926), 101.

8) 이 소단락의 제목은 에타 린네만(Eta Linnemann)과 쿠어트 알란트(Kurt Aland) 간에 있었던 논쟁과 연관이 깊다. 다음을 참조하라. Eta Linnemann, "Der (wiedergefundene) Markusschluß", *ZThK* 66 (1969), 255-287 그리고 Kurt Aland, "Der (wiedergefundene) Markusschluß?", *ZThK* 67 (1970), 3-13.

9) 다음을 참조하라. James A. Kelhoffer, *Miracle and Mission*, 7.

10) N. Clayton, *The Mutilation of Marks Gospel*, Abingdon, Nashville, 2003, 174-177에 실린 부록 A를 참조하라.

이 연구의 방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969년 에타 린네만(Eta Linnemann)이 발표한 다소 도전적인 제목의 논문이¹¹⁾ 잃어버린 마가 결말에 대한 논쟁을 학계의 수면에 떠오르게 하며, 마가복음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1. 마가의 결말은 마가 텍스트 바깥에 보존되어 있다

에타 린네만은 “(재발견한) 마가의 결말”(Der [wiedergefundene] Markusschluss)이라는 다소 도전적인 제목의 논문에서 마가의 결말이 그곳에서 끝나든, 아니면 본래의 텍스트에서 훼손된 후 분실되었든, 일치된 견해가 전혀 도출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연구를 시작한다.¹²⁾ 린네만은 마가의 결말로 논쟁이 되고 있는 “그리고 그들은 아무에게 아무 것도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무서웠기 때문이었다”¹³⁾를 독자에게 설득력을 얻으려는 주저함의 표현, 즉 누미노제(Numinose)의 경험, 혹은 제자들의 몰이해를 다루는 메시아 비밀과 연관된 해석으로 설명하려는 모든 시도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여전히 주지 못하고 있다고 혹평한다.¹⁴⁾

이어서 린네만은 이름하여 마가의 긴 결말(LE)에 마가의 잃어버린 결말이 들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일반화하면서 그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요청한다.¹⁵⁾ 동시에 긴 마가의 편집자로부터 전해지는 마가복음 16:15-20에 다른 병행이 없다는 사실은 이것이 고유한 전통(Tradition)이며¹⁶⁾ 거기에 마가의 원결말이 들어 있다고 주장한다.¹⁷⁾ 린네만은 16:8에서 끝나는 사본들인 B, \aleph , sys^s 와 몇몇 아랍어판 사본들이 동일 가족군의 사본인 것에 착안해 16:8 이후에 있는 마가의 결말부가 뜯겨져 나갔다는 라이트풋(Lightfoot)의 견해에 동조하면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짧은 결말(SE)이 부가되었고 그것이 긴 결말(LE)과 조합되어 다양한 형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¹⁸⁾

또한 그는 모르겐탈러(Morgenthaler), 로마이어(Lohmeyer), 헬즐레(Helzle) 등

11) Eta Linnemann, “Der (wiedergefundene) Markusschluss”, 255-287.

12) Ibid., 255.

13) 필자의 사역. 다음을 참조하라 막 16:8: “καὶ οὐδενὶ οὐδὲν εἶπαν· ἐφοβοῦντο γάρ”.

14) Eta Linnemann, “Der (wiedergefundene) Markusschluss”, 256-257.

15) Ibid., 258-260.

16) 고유하기 때문에 ‘낫설다’는 개념을 도입해서 긴 마가의 보도를 알기 쉽게 설명한 줄져 ‘주님의 부활에서 우리의 부활로’, 「그말씀」 4월호 부활 특집 (서울: 두란노서원, 2010), 8-21을 참조하라.

17) Eta Linnemann, “Der (wiedergefundene) Markusschluss”, 260.

18) Ibid., 261. 특히 각주 15번에 인용된 라이트풋의 견해를 보라.

과 함께 마가복음 16:15-20에 있는 언어-문학구성적 형태의 통일성에 대한 논쟁에서 꼭 원마가의 언어적 특성과 일치하는 요소가 없다고만 볼 수는 없다고 반박한다.¹⁹⁾ 따라서 그는 마가복음 16:8과 마가복음 16:15-20이 연속성 속에 있는가를 논하면서 마가복음 16:15ff와 마태복음 28:18ff 사이에 있는 밀접하고 다양한 접촉점을 확인한다. 사실 이 양자는 1. 보편적 전도 위임 2. 세례의 필요성 3. 부활하신 자의 권세라는 세 가지 모티브를 공유하며 마태복음 28:18a와 마가복음 16:15 그리고 마태복음 28:20b와 마가복음 16:20 실제적으로 일치하고 있다는 연구를 보여준다.²⁰⁾ 특히 부활하신 자의 사명 위임과 종말론적 승귀의 순서가 바뀐 점에 대해서 마태는 높여지신 분이 권세 있는 전도의 명령과 위임을 내리는 논리적 순서를 갖는 것으로 파악하여 마태가 마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한다. 즉 슈트레커(G. Strecker)의 주장에 반대하여 마태복음 28:18-20은 마가복음 16:15-20의 비평적 수용작업이었다는 것이다.²¹⁾

이제 린네만은 마가복음 16:15-20에서 사용된 단어나 표현들이 포스트-마가(Post-Mark)가 아니라는 논거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린네만은 마가복음 16:15-20에 등장하는 단어와 표현들을 “Once more the point of view is later”로 보는 빈센트 테일러(Vincent Taylor)와 대화를 전개한다.²²⁾ 테일러는 특히 뱀을 잡는 행위가 누가복음 10:19와 같은 의미를 갖는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이렇게 뱀을 잡는다는지 독을 마시는 일들은 기독교의 초기 박해 상황에서 있음직한 일로 A.D 100-140년 상황으로 본다.²³⁾ 즉 포스트-마가적 표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린네만은 테일러의 증명이 꼭 설득력 있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한 뒤, 마가복음 16:15-20에 등장하는 단어와 표현들은 오히려 마가의 텍스트 내에서 그 연속성과 유사성을 보일 수 있다고 한다.²⁴⁾

누가와와 병행도 비교한 후에 린네만이 내린 결론은 마침내 마가복음 16:8은 마가의 결말도 아니며, 또 그 결말이 분실된 것도 아니라는 놀라운 결과에 도달한다. 그는 마태복음 28:16 이하에 마가의 결말이 들어 있으며, 심지어 마가복음 16:15-20에도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²⁵⁾ 결국 마가의 결말이 훼손되어 소실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은 모두 이해하기 어려운 마가복음 16:8이 결론이라는 가

19) Ibid., 262-264와 264-269.

20) Ibid., 270-271.

21) Ibid. 이점에 있어서 슈트레커의 주장인 마가가 마태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과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그 반론을 전개한다. 다음을 보라. Eta Linnemann, “Der (wiedergefundene) Markusschluß”, 272-275.

22) Ibid., 278-283.

23) Ibid., 281.

24) Ibid., 283-284.

25) Ibid., 286-287.

정에서 발생된 것이라는 것이다.

3.2. 마가의 결말은 마가 텍스트 안에 들어 있다.

에타 린네만이 마침내 (잃어버렸던) “마가의 결말을 찾았다”라는 뉘앙스를 가진 다소 도전적인 논문을 발표한 그 다음 해에 본문비평학의 대표적 학자인 쿠르트 알란트(Kurt Aland)는 린네만의 논문을 노골적으로 겨냥한 듯 보이는 “마가의 결말을 찾았다고?”라는 뉘앙스의 논문으로 대응한다.²⁶⁾ 이 논문에서 알란트는 린네만 연구의 출발점이 되는 마가복음의 결말부가 훼손되어 분실되었다는 전제를 다음과 같이 일축한다: “마가복음의 결론부가 훼손된 후 분실되어서 그 의도된 결말이 따로 존재한다는 이론은 아주 이른 시기 그것도 원저자 스스로가 결론부를 훼손시켰을 때에만 비로소 성립 가능한 이론이다.”²⁷⁾

이런 배경 아래 그 후 2년 뒤에 발표된 슈미탈스(W. Schmithals)의 논문은 린네만이 마가복음 16:8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소 모험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조금 다른 방법을 모색한다.²⁸⁾ 즉 그는 본문비평의 결과를 받아들인 후, 문학비평적 관점²⁹⁾에서 접근한다. 그는 마가의 결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히 편집비평을 사용한다. 그래서 마가복음 16:1-3과 뒤 이어 나오는 16:4-6은 그 양식이 현현 이야기와 유비가 있는 기적 이야기에 속하고, 16:8은 다른 기적 이야기에서도 그 말미에 흔히 나타나는 전형적인 감탄/놀람(Chorschluss)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본다.³⁰⁾

이런 문학비평적 시좌에서 슈미탈스는 기독교 초기의 케류그마는 오래 된 신앙고백문 전승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예수의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과 현현이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파악한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다루면서도 부활과 현현을 단지 14:28과 16:7에서 암시는 하지만, 실제로 다루지 않는다는 것에 착안한다.³¹⁾ 결국 그의 논지는 14:28과 16:7이 보여주듯이, 두

26) Kurt Aland, “Der (wiedergefundene) Markusschluß?”, *ZThK* 69 (1970), 3-13.

27) *Ibid.*, 9. 작년 3월 나의 학위논문을 최종점검할 때 슈미탈스 교수의 부고를 받았던 지도교수 린데만교수(Lindemann)와 함께 고인의 생전을 회상했던 기억이 새롭다. 슈미탈스교수의 장례를 집례한 린데만 교수는 슈미탈스교수를 남이 하지 않는 독특한 연구와 주장을 많이 했던 학자로 평가한다.

28) Walter Schmithals, “Der Markusschluß, die Verklärungsgeschichte und die Aussendung der Zwölf”, *ZThK* 69 (1972), 379-411.

29) 독일에서 사용되는 문학비평(Literarkritik)이라는 용어는 영·미에서 말하는 것과 그 의미가 사뭇 다르다. 독일에서는 이 말을 (원)자료비평(Quellenkritik)이라는 쪽에 더 가깝게 사용하고 있다.

30) *Ibid.*, 380.

31) *Ibid.*, 380-382.

번에 걸친 편집적 첨가를 통해서 이미 알려준 사건이 16:8 이후의 결말에서 또 다루어진다면 그것은 불필요하며 과도한 사족이 되어 문학적 긴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³²⁾

따라서 쉬미탈스는, 자기는 공관복음서의 자료설을 학문적 합의로 받아들인다고 전제한 후, 전승된 자료설의 입장에서 16:8이 마가의 원결말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14:28과 16:7의 필수적인 편집적 첨가에서 밝혀지는 것처럼, 마가는 부활하신 예수가 베드로 및 그와 함께 한 제자들과 재회하는 현현 사건이 16:8 뒤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미 그의 손에 전달된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³³⁾ 그런데 마가는 그것을 단지 14:28과 16:7에서 암시만 하고 16:8 뒤로 이어지게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즉 그의 편집적 재구성에 따르면 마가에게서 빠져 있는 이 결말이 부활 이전의 이야기 속에 배치되었다는 것이다.³⁴⁾ 그래서 그의 논문은 우리가 변화산 이야기(Verklärungsgeschichte)라고 부르는 마가복음 9:2-8과 12제자 파송 이야기(Aussendung der Zwölf)라고 하는 마가복음 3:13-19에 고정된다.

사실 볼트만(R. Bultmann)과 벨하우젠(J. Wellhausen)은 이미 마가복음 9:2-8은 9:1과 11절의 문맥 속에 삽입된 독립적 이야기 단위로 파악하고 있었다. 양식비평에서 잘 알려져 있듯이 그 양식(Form)은 현현 이야기로 분류되는 것이다.³⁵⁾ 이런 관점의 연속성 속에서 쉬미탈스는 이 변화산 이야기가 바로 빈 무덤 이야기의 뒤를 잇는 부활·현현 이야기이며, 고린도전서 15:5와 누가복음 24:34에서 증거하는 “베드로에게 현현하심”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해하기 어려운 ἐφοβούντο γάρ은 여인들의 침묵을 설명하는 말로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14:28과 16:7은 제자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독자들을 위한 편집적 첨가로 마가는 당연히 베드로와 12제자가 부활하신 주와 만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³⁶⁾

이제 자연스럽게 쉬미탈스는 마가복음 9:2-8을 다룬다. 인상적인 것은 변화산 이야기를 도입하는 2절의 “그리고 6일 뒤”(καὶ μετὰ ἡμέρας ἕξ)라는 표현이다. 그는 누가가 이 시간의 경과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잘 알지 못해 8일(ἡμέραι ὀκτώ)로 수정했다고 전제하고, 이 시간의 경과를 16:8의 빈 무덤 발견 후 예수께서 베드로 앞에 현현할 때까지 기간을 말하며, 특히 출애굽기 24:16에서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서 계시하시기 전까지 구름³⁷⁾ 속에서 침묵하셨던 기간과 유비 관계에 있

32) Ibid.

33) Ibid., 383f.

34) Ibid., 384.

35) Ibid., 384. 특히 각주 13번에 소개된 풍부한 참고문헌들을 보라.

36) Ibid., 385.

다고 본다.³⁸⁾

부활하신 예수와 제자들이 만나는 모티브에서 또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그 배경으로 등장하는 산이라고 할 수 있다. 변화산 사건의 배경이 되는 산을 마태복음 28:16, 사도행전 1:12 그리고 마가복음 3:13의 산과 동일시하는 쉬미탈스는³⁹⁾ 마가복음에 있는 산에서 있었던 또 하나의 사건에 주목한다. 예수의 현현과 그의 제자들에게 부여된 선교의 위임이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짐작하는 쉬미탈스는 마가복음 3:13-19가 본디 현현 이야기였을 것이라고 본다.⁴⁰⁾ 사실 마가복음 3:13-19는 볼트만과 디벨리우스(M. Dibelius)에게서 그 양식을 결정짓기 어려운 부분으로 전해진다. 쉬미탈스는 볼트만의 후기 견해에 따라 이것을 전승의 한 단락으로 규정짓고 연구를 시작한다.⁴¹⁾ 무엇보다도 그 출발점은 위에서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12제자 그룹이 부활하신 분의 현현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이고, 12제자의 소명과 선교의 위임이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던 것이 바로 예수가 12제자 앞에 나타난 현현 이야기의 밑바탕이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어서 쉬미탈스는 마태복음 28:18과 마가복음 16:15-20을 비교하면서 마가복음 3:13-19가 본래적인 부활·현현 이야기였을 것이라는 상세한 주석을 한다.⁴²⁾ 우리에게 전해진 오래 된 사본들이 마가의 결말이 훼손된 채 전승되었지만, 이른 시기의 사본들은 그 반대로 마가의 결말을 보전하고 있다는 본문비평적 이해를 오히려 에타 린네만을 비판하면서, 쉬미탈스는 자신의 연구를 바탕으로 베드로에게 그리고 나머지 12제자에게 각각 두 번 산에서 현현하신 부활하신 자의 텍스트를 재구성하며 자신의 논문을 마무리 짓는다.⁴³⁾

이상에서 살펴본 마가복음의 결말에 대한 린네만과 쉬미탈스의 연구는 그 단초에 본문비평적 연구 결과와 전승된 사본의 증거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연구 결과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놓여 있다. 아래에서 살펴볼 연구들은 위에서 살펴본 연구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시도된다. 이 연구들은 난해한 구절인 마가복음 16:8의 ἐφοβούντο γάρ 중 후치 가능 접속사 γάρ의 언어-기능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마가의 결말에 대한 수수께끼를 해결하려는 시도들을 담고 있다.

37) 구름은 보통 하나님의 현존(출 16:10, 24:15, 신 1:33, 왕상 8:10 등)을 상징하거나 신적 존재의 이동수단으로 여겨진다(왕하 2:11, 행 1:9, 살전 4:17, 계 11:12 등).

38) Ibid., 386-388.

39) Ibid., 388.

40) Ibid., 388 과 402.

41) Ibid., 398f.

42) Ibid., 401-408.

43) Ibid., 408-411. 에타 린네만에 대한 비평은 403-404와 406을 보라.

4. 종결의 가르(γάρ)

언제나 수그러들지 않는 마가복음의 결말에 대한 새로운 연구는 바로 후치 가능 접속사인 γάρ에 집중하면서 다시 수면에 부상했다.⁴⁴⁾ 본문비평에서 제시하는 마가복음 원결말의 마지막 단어인 γάρ에 관심하는 이 연구들은 주로 다음의 질문을 내포하고 있다: “어떤 한 문장이나 단락이 γάρ로 끝날 수 있는가?”

4.1. 종결의 γάρ가 문장의 마침이 될 수 있는가?

마가의 결말이 16:8에서 ἐφοβούντο γάρ로 끝난다고 할 때, 공관복음서 연구자들에게는 먼저 후치 가능 접속사 γάρ가 제2복음서의 마지막에 위치한 것에 주목하고 이 γάρ가 주는 형식과 내용상의 낯설음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 당연히 그들은 성서의 안팎에서 그 사례를 찾는다.⁴⁵⁾ 후치된 γάρ는 성서 안에서 구약과 신약 “οὐκ ἐγέλασα ἐφοβήθη γάρ”(창 18:15 LXX)와 “καὶ καλῶς λέγετε· εἰμὶ γάρ.”(요 13:13)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파피루스에서 무작위로 유사한 구문과 용례를 조사한 크래링(Carl H. Kraeling)은 Pap. Oxy. no 1223(4 c. A. D.)에 있는 교역 문서 중에서 문장의 끝에 있는 γάρ가 사유, 첨가적으로 사용되지만, 그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갖지는 않는다고 밝혔다.⁴⁶⁾

같은 맥락에서 부머샤인(Thomas E. Boomershine)과 바돌로매(Gilbert L. Bartholomew)도 제2복음서의 결말인 16:8의 마지막 두 단어 ἐφοβούντο γάρ의 기능과 역할에 관심을 갖는다. 마가복음의 결말에 쓰인 두 단어는 선행하는 문장 καὶ οὐδενὶ οὐδέν· εἶπαν과 NA²⁷과 UBS⁴(1993)에서 각각 NA²⁷은 쌍반점으로, UBS⁴는 쉼표를 통해서 구분되는 것에 주목한다.⁴⁷⁾ 이것은 또한 번역성서인 RSV, NEV와 예루살렘성서 등에서도 보이는데,⁴⁸⁾ 이상의 사실로부터 부머샤인과 바돌로매는 ἐφοβούντο γάρ가 선행문장과 쌍반점이나 쉼표와 같은 문장부호

44) 특히 다음을 참조하라. Kelly R. Iverson, “A Further Word on Final Γάρ (Mark 16:8)”, *CBQ* 68 (2006), 79-94와 N. Clayton Croy, *The Multilation of Marks Gospel* (Nashville: Abingdon, 2003).

45) 다음을 참조하라. Morton S. Enslin, “ἐφοβούντο γάρ, Mark 16:8”, *JBL* 46 (1927), 62-68; Carl H. Kraeling, “A Philological Note On Mark 16:8”, *JBL* 44 (1925), 357-358.

46) Carl H. Kraeling, “A Philological Note On Mark 16:8”, 357.

47) 다음을 참조하라. Thomas E. Boomershine and Gilbert L. Bartholomew, “The Narrative Technique of Mark 16:8”, *JBL* 100 (1981), 213-223과 220.

48) 우리나라의 번역성서들은 『표준』이 쉼표로 구분하고 있고 『개역』과 『개역개정』에서는 아무런 문장부호 없이 선행문장과의 종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이한 것은 『공동』은 마침표로 선행 문장과의 단절을 표시한다.

뒤에 나오는 것은 문장 안에서의 짧은 휴지(休止)를, 숨을 쉬 뒤에는 구별된 문장으로 이해하라는 표지라는 것이다. 즉 이 종결의 γάρ는 여인들의 놀람과 충격, 도망간 이유를 설명하는 내러티브적 첨가로⁴⁹⁾ 클라이막스를 보여주는 내러티브 기법이라는 것이다.⁵⁰⁾ 따라서 적어도 형식면에서 종결의 γάρ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⁵¹⁾

4.2. 종결의 γάρ는 책의 마침이 될 수 있는가?

마가의 원결말로 인정되는 텍스트의 마지막에 위치한 후치 가능 접속사 γάρ는 그 기능적, 실용적 논쟁 속에 다시 휘말리게 되는데, 그것은 이 γάρ에 대한 질문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이다. 질문은 다시 어떤 한 문장이나 문단이 γάρ로 끝날 수 있는 있겠지만, 책의 대단원(大團圓)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즉 여기서 논쟁이 되는 것은 후치 가능 접속사 γάρ로 문장이나 문단이 끝나는 것과 책이 끝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1972년 반테어 호르스트(P. W. van der Horst)가 내놓는다. 그는 플로티누스(Plotinus) 전문가인 문헌학자 리차드 하더(Richard Harder)에 기대어 그의 논문 “Can a Book End with a ΓΑΡ? A note on Mark XVI.8”에서 플로티누스의 32번째 논문(Ennead 5.5)이 γάρ로 끝나는 것을 제시한다. 리차드 하더에 따르면 플로티누스의 논문 30, 31과 33이 각기 전체 논문의 고유한 부분인데도 그의 제자 포르피리가(Porphry)에 의해서 나누어졌다는 것이다. 이때 그는 γάρ가 책의 끝에 위치하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것이다.⁵²⁾ 더구나 여기에서 포르피리는 그 논문을 스승인 플로티노스가 스스로 구분해 놓은 표식에 따라 분리했다는 것이다.⁵³⁾

결국 반테어 호르스트의 결론은 문장이나 문단이 γάρ로 끝날 수 있으면 책도 역시 γάρ로 끝날 수 있으며, 이것은 이제 전혀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4.3. 종결의 γάρ에 대한 새로운 관점

49) 다음을 참조하라. Thomas E. Boomershine and Gilbert L. Bartholomew, “The Narrative Technique of Mark 16:8”, 220.

50) Ibid., 221.

51) 성서와 고대 그리스 문헌에 나오는 더 많은 사례들을 보려면 다음을 참조하라. Morton S. Enslin, “ἐφοβούντο γάρ, Mark 16:8”, 64-65.

52) P. W. van der Horst, “Can a Book End with Γάρ A note on Mark XVI.8,” *JTS* 23 (1972), 121-124, 특히 123.

53) Ibid.

종결의 γάρ에 대한 더 이상의 논쟁을 종식시킬 것 같은 반데어 호르스트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의 결말부 마지막에 위치한 단어 종결의 γάρ에 대한 구심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최근에 크로이(N. Clayton Croy)는 다시금 마가복음이 16:8의 γάρ로 끝날 수 없음을 증명했다. 그는 텍스투스 레캡투스(Textus Receptus)의 긴 결말이 마가의 원결말은 아니지만 16:8 이후에 원래 존재하던 마가의 원결말도 뜯겨나갔다는 주장을 한다.⁵⁴⁾ 그의 방법론적 시도는 독특하게 고대의 모든 그리스어 문헌을 모아서 디지털화한 TLG-Data Base⁵⁵⁾를 사용한다. 그는 이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이용하여 종결의 γάρ가 텍스트 내에서 가지고 있는 실용적, 기능적 물음을 구체화한다:

중요한 질문은 이제 더 이상 문장이 γάρ로 끝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식의 문장이 γάρ로 끝나는가 하는 것이다. 명백하게 그런 문장들은 짧은 문장이며 두세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덜 분명한 것은 그런 문장들은 특정한 형식의 문학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γάρ가 들어 있는 짧은 문장들은 흔히 구술적 정보와 대화의 유형임을 반영한다. 그것들은 종종 부가적인 형태로 삽입된 것들이고 언제나 [그 문장이: 역자주] 계속된다. γάρ로 끝나는 문장들은 내러티브에서 흔한 것은 아니다.⁵⁶⁾

크로이는 또한 그의 논문에 TLG CD-ROM E를 통해서 추출한 종결의 γάρ가 포함된 고대의 문헌들을 빈도수에 따라 정리한 부록을 제공한다.

크로이가 시도한 연구의 의의는 어떤 문장이나 책이 γάρ로 끝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유형의 문장과 책의 마지막이, 말하자면 종결의 γάρ로 끝날 수 있는가를 질문하고, γάρ가 나타나는 문장과 책의 유형을 조사, 구분하여 그 안에 있는 실용적 기능을 살폈다는 데 있을 것이다. 그러나 TLG를 분석한 그의 연구는 곧 아이버슨(Kelly R. Iverson)에 의해서 반박된다.⁵⁷⁾

크로이는 부가적인 기능을 가진 γάρ의 경우 종종 부가적으로 삽입되어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기 때문에 뒤이어 연결되는 텍스트가 필요하고, 내러티브에서

54) 다음을 참조하라. N. Clayton Croy, *The Multilation of Marks Gospel* (Nashville: Abingdon, 2003).

55) *Thesaurus Linguae Graecae*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Luci Berkowitz와 Karl A. Squitier, *Thesaurus Linguae: Canon of Greek Authors and Works*, 3판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x-xiii 또한 CD-ROM E (Irvine: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TLG Project, 2000).

56) N. Clayton Croy, *The Multilation of Marks Gospel*, 48.

57) Kelly R. Iverson, "A Further Word on Final Γάρ (Mark 16:8)", *CBQ* 68 (2006), 79-94.

이런 현상이 드문 것이라고 연구했지만, 같은 TLG를 가지고 연구한 아이버슨은 그 반대의 경우들을 찾아낸다.⁵⁸⁾ 그는 복음서들과 거의 흡사한 문학 장르에 속하는 예를 들면, 역사, 전기, 내러티브, 복음서문학, 종교문학 등에서 16개의 반대 경우가 발견된다고 한다. 특히 아이버슨은 폴리비우스(Polybius)와 디오 카시우스(Dio Cassius)의 글 중 종결의 γάρ가 쓰인 문장을 인용하여 논증한다.⁵⁹⁾ 그는 이 두 경우 문법적으로 마가의 구조와 흡사한 병행을 이루며, 더구나 내러티브 문장이라고 크로이에게 일침을 가한다.⁶⁰⁾ 결국 아이버슨이 말하고 싶은 것은 종결의 γάρ가 나타나는 특정한 사례를 가지고 특정한 이론을 체계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종결의 γάρ는 결말에 이르지 못한, 갑자기 단절을 보이는 것 같은 텍스트에서도 나타나지만, 의도된 결말을 포함한 텍스트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것이 내러티브 유형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마가복음이 16:8로 끝나지 않았을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⁶¹⁾ 아이버슨은 종결의 γάρ로 끝나는 책의 또 다른 사례인 무소니우스 루푸스(Musonius Rufus) 12번째 소논문⁶²⁾을 소개하며 그의 논문을 맺는다.

5. 나오는 말

이상의 연구에서 우리는 마가복음의 원결말을 찾기 위한 공관복음서 연구가들의 다양한 질문 방식과 연구 방식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마가복음의 원결말을 찾겠다는 시도는 무엇보다 먼저 본문비평적 결과에 따라 마가의 원결말로 인정되는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 καὶ οὐδενὶ οὐδὲν εἶπαν ἐφοβοῦντο γάρ”에 위치한 두 단어 ἐφοβοῦντο γάρ가 그 형식과 내용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과 과연 복음서가 그 결말로 기대되는 예수의 부활과 현현을 이야기하지 않은 채로 끝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기인한다.

린네만의 “(재발견한) 마가복음의 결말”이라는 논문으로 다시 촉발한 마가복음의 결말에 대한 논쟁은 사실 해석상의 문제보다도 본문비평의 결과로 인정된 본문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린네만은 **마가 텍스트의 바깥**에 보존되었다는 마가의 결말을 찾아내었다. 반면에 쉬미탈스는 본문비평의 결과를 수용하면서 문학비평, 특히 편집비평의 입장에서 신앙고백 전승과

58) Ibid., 81-87.

59) Ibid., 86-87.

60) Ibid., 87.

61) Ibid., 93.

62) Ibid., 94.

마가 이전의 원자료에 대한 재구성을 통하여 부활과 현현이 복음서의 결론으로 전승되었을 것을 확신하고 마가 텍스트 안에서 그 결말을 찾아내었다. 이 연구는 최근에 다시 종결의 γάρ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관심으로 부각되었는데, 최근의 경향은 호머(Homeros)로부터 1453년 비잔틴의 멸망에 이르는 그리스어 텍스트를 모아서 정보화한 TLG CD-ROM E를 사용하는 데까지 발전했다. 클로이와 아이버슨의 대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는 입력하는 질의(query)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끊이지 않는 마가의 결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해석학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6:8이 결말인가 아닌가에 대한 도마뱀 꼬리 잘라내기 식의 논쟁이 아니라, 본문비평적 결과로 인정된 텍스트를 역사적으로 수용하고, 어떻게 하면 마가의 마지막 절구 και οὐδενὶ οὐδὲν εἶπαν ἐφοβοῦντο γάρ을 해석할 것인가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나는 발터 슈미탈스가 그 좋은 한 예를 보였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에게서 아쉬운 것은 마가복음 16:8의 절구가 형식과 내용 면에서 난해하다고 거기서 눈길을 돌려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리고 그들은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하였다. 그들은 무서웠기 때문이었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바로 그곳에 시각을 고정하고 마가가 인도한 그 빈무덤의 현장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마가의 결말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와 γάρ가 갖고 있는 기능을 해석하는 혜안을 가져야 할 것이다.

(투고 일자: 2010. 8. 27, 심사 일자: 2010. 8. 27, 게재 확정 일자: 2010. 10. 4)

<주요어>(Keywords)

마가의 결말, 종결의 γάρ, 그리스문헌 데이터베이스, 본문비평, 해석학.

the Ending of Mark, final γάρ, TLG-Data Base, textual critics, hermeneutics.

<참고문헌>(References)

- Aland, Kurt und Aland, Barbara, *Der Text des Neuen Testament*, Stuttgart, Bibelgesellschaft, ²1989.
- Aland, Kurt, “Der (wiedergefundene) Markusschluß?”, *ZThK* 69 (1970), 1-13.
- Berkowitz Luci and Squitier, Karl A., *Thesaurus Linguae: Canon of Greek Authors and Works*, 3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 Boomershine, Thomas E. and Bartholomew, Gilbert L., “The Narrative Technique of Mark 16:8”, *JBL* 100 (1981).
- Croy, Clayton N., *The Multilation of Marks Gospel*, Nashville: Abingdon, 2003.
- Enslin, Morton S., “ἐφοβούντο γάρ, Mark 16:8”, *JBL* 46 (1927), 62-68.
- Focant, Camille, “La canonicité de la finale longue (Mc 16,9-20) vers la reconnaissance d’ un double texte canonique?”, in ders., ed., *Marc, un évangile étonnant*, BETHL 194,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2006.
- Frey, Jörg Frey, “Zu Text und Sinn des Freer-Logion”, *ZNW* 93 (2002), 13-34.
- Holmes, Michael W., “To Be Continued···The Many Endings of the Gospel of Mark”, *BR* 17 (2001), 12-23 and 48-50.
- Iverson, Kelly R., “A Further Word on Final Γάρ (Mark 16:8)”, *CBQ* 68 (2006), 79-93.
- Kelhoffer, James A., *Miracle and Mission*, Tübingen: Mohr Seibeck, 2000.
- Kevin, Robert Oliver, “The Lost Ending of the Gospel according to Mark”, *JBL* 45 (1926), 81-103.
- Kraeling, Carl H., “A Philological Note On Mark 16:8”, *JBL* 44 (1925), 357-358.
- Linnemann, Eta, “Der (wiedergefundene) Markusschluß”, *ZThK* 66 (1969), 253-287.
- Lührmann, Dieter, *Das Markusevangelium*, HNT3, Tübingen: J.C.B Mohr, 1987.
- Magness, Lee J., *Sense and Absence*, Atlanta: Schola Press, 1986.
- Schmithals, Walter, “Der Markusschluß, die Verklärungsgeschichte und die Aussendung der Zwölf”, *ZThK* 69 (1972), 379-411.
- van der Horst, P. W., “Can a Book End with Γάρ A note on Mark XVI.8,” *JTS* 23 (1972), 121-124.
- Thesaurus Linguae Graecae (TLG), CD-ROM #E. Hg.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2000.

<Abstract>

The Ending of the Gospel of Mark and the final ΓΑΡ

Dr. Young-in Kim
(Hana Bible Institute)

The second gospel ends abruptly at 16:8 in riddled words: ἐφοβοῦντο γάρ without disciples' encounter with the resurrected Jesus. This has become problematic for Christian readers because of the ellipsis about the rehabilitation and the reunion of the resurrected Jesus and his disciples, and because it is quite different from the main frame of other synoptic gospels. So it turned out that we have some 1,700 codices which have various endings in relation to the Gospel of Mark.

Although textual critics would have commonly asserted that Mark 16:8 is the original intentioned ending, it is often assumed that the last leaf of a copy book was worn out or torn off because of the puzzling ending in Mk 16:8. For this reason, New Testament scholars like Eta Linnemann and Walter Schmithals attempted to reconstruct Mark's original ending, but their points of view are quite different from each other: (1) the ending was lost, but it was preserved in Mk 16:15-20 (LE: Long Ending) and Mt 28:18-20 - E. Linnemann (2) Mk 16:8 is the original ending of Mark, but the right position of conclusion is not in its place; it was changed and is now in Mk 3:13-19 and Mk 9:2-8 - W. Schmithals. The difference of both positions is based on whether they can accept the result of textual critics. Therefore, one attempts to find out the original ending of the second gospel outside the text of Mark while the other attempts to do so within the text.

Recently a new discussion about the final γάρ has developed in this context. In the past, the main question was this - what is the literary role and function of the final γάρ. So they inquired after whether a sentence or book can end with γάρ. Actually after the study of van der Horst, it was proved that not only a sentence but also a book can end in γάρ. However, the new perspective of the final γάρ involves the use of the TLG-Data Base which includes all of the extant Greek texts from pre-600 to 1453 C.E. According to the statistical results from the TLG, N. Clayton Croy showed that the final γάρ also has a narrative function which demands additional information, which serves as the evidence that Mk 16:8 is not the original ending of Mark. Unfortunately, Kelly R. found some counter-examples in the TLG. Finally, in order to understand the complex issues about the ending of Mark, it is necessary to accept the result of textual critic and also to approach with a new hermeneutics.